

양계 계열화사업, 본궤도 진입

□ 취재/김용화 부장

우 리나라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들여온 공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금년 7월의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생산성과 유통, 상품성 향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놓아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구경북양계축협(조합장 류종래)은 지난 '90년에 창립 총회를 거쳐 '91년에 업무를 개시한 이래 대구경북의 562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관내 양계농가 중 92%가 참여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동축협은 본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소 5개, 판매장 4개, 집하장 3개, 저온창고 1개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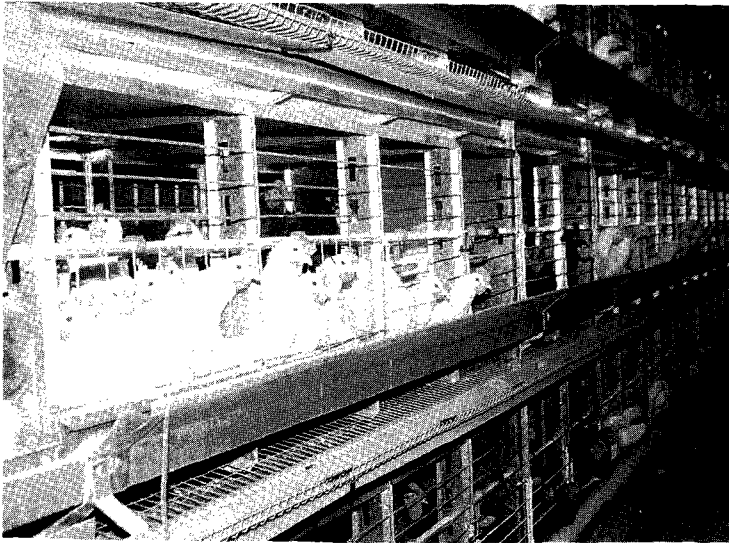
계열화 사업장을 갖추고 조합원의 수익증대는 물론 대구경북 양계농가의 생존을 위해 사업기반을 다져 그 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경양계축협을 탄생

시키는데 주역으로 활약해온 류종래 조합장은 양계업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보는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품성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 한국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류종래 조합장



△ 종계의 능력은 실용계의 생산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최신 무창 설비로 사육되는 하이라인 갈색산란종계

양계업이 수입개방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내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양계업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것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양계인들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경영방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높은 나무의 과실을 따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었듯이 작은 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찾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과도한 투자와 자금압박 때문에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의 비합리, 질병 급증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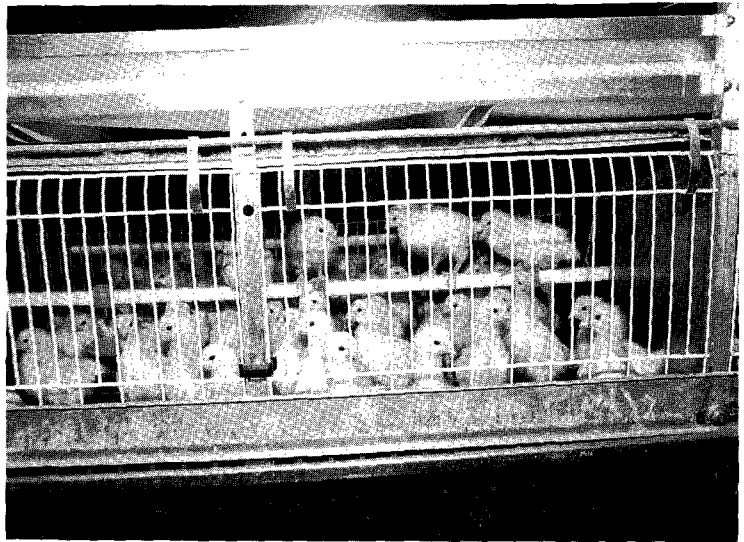
단을 내리고 있다.

이미 대경양계축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양계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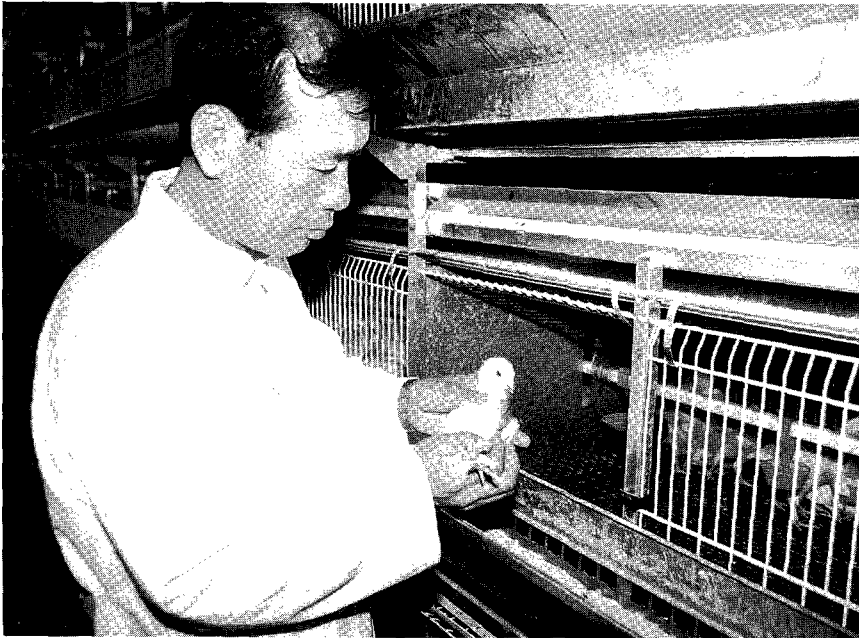
근해 가고 있는데 계란은 정성란이란 상표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어서 유통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닭고기도 금년부터 계약형태로 사육하여 축협의 상표를 부착 공급하고 있다. 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 육계와 산란계의 완전계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장·단기 목표하에 임·직원은 물론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여 562명의 조합원이 11억여원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한 가운데 신용사업이 360



△ 중추육성은 향후 실용계의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 중추는 계란생산의 중요한 원자재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철저한 기록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사양관리만이 우량 중추를 생산하는 지름길이다.

억원대를 넘어섰고, 경제사업도 630억원을 넘어 연간 1천억원대를 집행하는 경북의 관내 5대 조합 순위에 오를만큼 성장한 것은 102명의 직원과 임원 및 조합원의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집하장은 현재 1일 94만개의 계란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원활한 계란확보를 위해 15개 채란농가(조합원)와 계약사육을 하는데 사육규모는 40만수이다. 집하장에서 모아지는 계란은 농가의 선별없이 들어와 신선도를 중점으로 채

크한 후 상표를 부착하여 직영판매장 및 대구시 및 경북지역 상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의 형태를 갖추면서 종계장, 중추사, 사료, 동물약품 등의 원자재 공급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동구매를 통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자재를 공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종계장과 중추장 운영이다. 종계장은 제1농장과 제2농장으로 건립하여 케이지와 평사사육으로 나누어 종계가 관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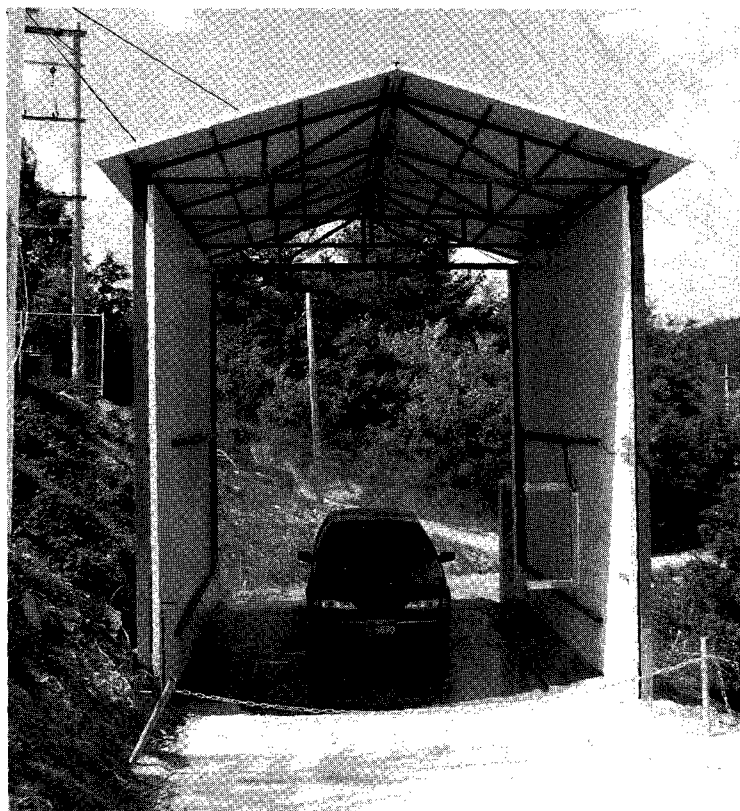
는데 당초 1개 농장에서 병아리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농가의 규모확대, 사업량 증가로 수요에 따른 공급량이 부족하여 균형적인 생산과 전 조합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로 평사 사육 방식인 제2농장을 확보하였다.

현재 사육 중인 종계는 하이라인 갈색산란계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품종 선택도 투표로 할만큼

민주적인 조합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추장은 건평 1,232평에 5만수가 육성될 수 있는 계사 4개동으로 건축이 되어 20만수를 육성할 수 있다.

중추장 건립에는 총 사업비가 2억7천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4개동이 모두 무창 최신식 직립식 케이지이며, 모든 관리가 전자동방식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 농가에 우량한 중추를 규모에 관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 중추장 입구에 세워진 차량 소독기. 집배원의 오토바이까지 철저하게 소독을 한다.

그러나 현재는 3만수의 중계에서 생산되는 병아리 중 20%만이 중추로 육성되어 계약농가에 공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전량 병아리로 일반 판매할 계획이다.

중추는 70일령을 기준으로 사육이 되는데 일령이 연장되면 추가 사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1차로 입추될 중추 육성용 병아리는 금년 6월 16일과 19

일이므로 이때부터 일반 농가는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중추 계약도 부분적으로 가능해 별도로 대구경북양계 축협과 협의를 하면 된다.

대구경북양계축협은 이제 기초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조합원과 한국양계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양계인들이 4~5개 지역을 중심

으로 권역별로 나뉘어 서로의 영역을 위해 통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규모의 영세성으로 늘 취약성을 면치 못했으나 이제는 양계축협을 중심으로 개방속에서도 생존해 나갈 수 있고, 국내 생산자간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모든 양계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선 관내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금티푸스가 만연되면서 내성이 강한 백색계의 사육기반을 넓히기 위해 백색란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작업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추사업만 하더라도 조합 농가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는 안전성과 신선도에 밀거름이 되는 소중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여 농가의 과도한 직접 투자 낭비를 예방하고, 양질의 산란계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높여 소득증대에 한몫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연락처: (053)652-7401) 양계